



Duccio, 1255-1319년, <예수님과 사마리아여인>, 1308-1311년, 마드리드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f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탈출 17,3-7

[화답송] 시편 95,1-2.6-7 7ㄱ ㄷ.7ㄹ-9(◎ 7ㄹ과 8ㄴ)

너 희 마음을 무디게 - 하지 마 라

(후렴) 오 늘 주 님 목 소 리 에 귀 를 기 울 여 - 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니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로마 5,1-2.5-8

[복음환호송]..... 요한 4,42.15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복음] 요한 4,5-15.19ㄴ-26.39 ㄱ.40-42

[성가안내]

- 입당성가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 봉헌성가 [222] 주여 나를 가없이 보아주소서
- 성체성가 [197] 나그네 양식이요
- 파견성가 [282] 의로운 성 요셉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준일 베드로, 김영복 아네스	김애희 테클라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이영우, 이태모	이상홍 스테파노
허갑중 Robert Bellamine	허정윤 크리스티나
김기성 마리아	박기목 알버트
● 생미사	
오늘 미사에 오신 모든 신자분들, 아프신 모든 분들, 코로나19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울리타 김
전마사자 카타리나	연령회
경재순 가밀라	성모회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3월 15일	조완준 바로로	장철순 스테파노	박신희 리나	황세유 루카스	윤숙자 루시아	백이백 이정현	임유진 김하나	홍민철(성가대)
3월 22일	한채희 로사	안수관 토마스	원혜경 아네스	신혜정 소화데레사	박인영 크리스티나	박예하 조예지	조소연 이아람	채미재(성가대)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래 성당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예비자 및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건강교리	주일 10:50am-12:10pm, 교육관 5호실

[복음 묵상]

“진정한 하느님 만나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에 대해 진솔해지고, 자신에 대해 진실해짐으로써 진정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진정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다면, 먼저 신앙생활 안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진솔해져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자.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이 영원한 생명에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속으로는 사랑 받고 싶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려한다. 또 마음속 깊은 불안을 분노로 위장한다. 다양한 가면들로 자신을 가린 채 살아가지만 그런 삶은 더 큰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대가를 지불할 뿐이다.

자신에 대해서 진솔해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자신에 대한 진솔함은 타인에게, 그리고 하느님께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사랑받고 싶고, 불안하고, 외로운 자신과의 대면이 두려운가? 언제 들통 날지 모르는 가면을 쓴 채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렵지 않은가?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사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 출판
당일 인쇄 가능

EDDM Mailing Services/Yelp. Email Marketing

212.971.0212/ 268.2776
208 W. 29TH ST.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김승범 분도 치과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단체모임 안내]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아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I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다가오는 행사]

성주간과 파스카 성야 전례 안내

- 주님 만찬 성 목요일 : 4.9. 8Pm. 윗성당
- 주님 수난 성금요일 : 4.10. 8Pm. 윗성당
- 파스카 성야 : 4.11. 9Pm. 윗성당
- ☺ 파스카 성야 미사 중에 세례 및 견진 예식이 있습니다.

제24차 청년 성령세미나(2박3일)

- 일시 : 5.22(금) 11am-24(주일)5pm
- 장소 : 뉴튼 수도원
- 지도단 : 김영민 미카엘 신부,
김정경 실바노 신부,
청년 성령 봉사회팀
- 인원 : 선착순 45명
- 신청마감 : 5.11(월)
- 대상 : 18이상 35세 까지 청년
- 참가비 : \$300.00
-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장
김영희 안나 347.665.6696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 정동혁 미카엘(카톡 : cdh306)

청년성서모임 참가자&봉사자

청년성서모임은 3-6명의 소그룹 안에서 성서
말씀과 생활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아래 봉사자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 신청마감 : 3.22(주일)
- 개강 : 3.29(주일)→연기
- <요한>과정은 마감되었습니다.
- 대표봉사자 : 이수현 소화데레사
646.251.4413

**미동북부 여성 제38차
꾸르실료 수강자**

이상, 순종, 사랑을 모토로,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동행을 위한 꾸르실료 3박4일의 여정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시 : 4.23(목)-26(일)
- 장소 : 뉴튼 수도원
- 대상 : 영세받은 지 3년 이상 된 여성신자로
본당신부님께서 추천하신 분
- 문의 : 본당 울뜨레야간사 민완준 필립보
929.444.1411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620 김 이 성미나 경원유 박기목 임영애 송준호 김보현
감사헌금	\$ 0
합 계	\$ 620

❖ 꽃봉헌 : \$ 0

미사예물 및 교무금, 경애원 후원금은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성경통독 입문서 판매 : \$20

사무실에서 구입하세요.

성경 공부 : 휴강

교무금 책정을 하셨나요?

교회는 교회 운영비인 교무금을
신자들의 의무 중 하나라고 규정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아직 교무금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책정해보면 어떨까요?



[성경구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레지오에 입단하여 활동한지 어언 2년이 흘렀습니다. 미사 시간이 좋아 찾아왔던 성당이였기에 본당의 많은 단체들에 관심이 없었고, 미사 후 곧장 집으로 가기 바빴던 저에게 아는 사람들이 있을 리 만무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여러 해를 보내던 중 문득 돌아보니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미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성가대, 재정적인 업무를 돕는 재무팀 등 성당 안에서 이뤄지는 많은 단체와 봉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당에 가는 것은 물론 미사 참석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활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봉사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지낼 수 있을 거 같아 레지오에 입단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기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온갖 활동들과 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욕은 한풀 꺾이고, 레지오 단원들 사이에서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단원들을 볼 때면 저 역시 사기가 떨어져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단원들에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실망감이 커져가던 중 평소 좋아 하던 한 성경 구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랑을 받기만 하였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며 보기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척만 했지 진실로 받은 사랑을 실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어느 주일, 성가대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동안 제 생각에 사로잡혀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성가를 듣는 동안 가족, 레지오 식구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들으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

본당 게시판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지침]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보도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 프란치스코 한인 공동체는, 교우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당 방침을 알려드리오니, 지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일 미사 이외의 모든 활동은 중단합니다(청년미사도 중단합니다).
2. 주일학교, 한국학교, 레지오 회합, 예비신자 교리, 모든 단체 모임 (재속 프란치스코회 모임, 청년 성서 모임 포함)도 중단합니다.
3. 뉴욕대교구 방침에 따라, 미사 중 성혈은 영하지 않습니다.
4. 기존에 실천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때 손잡지 않기, 평화의 인사 때 악수하지 않기 등은 계속됩니다.
5. 한국이나 중국을 방문하신 분이나, 가족 중에 방문하신 분이 있는 경우, 최소 2주 자가 격리를 합니다.
6. 발열을 포함하여 감기 증상이 있는 분은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7. 5.6에 해당되시는 경우, 주일미사 참석 대신, 목주기도 5단, 해당 주일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전입을 환영합니다]

권민호(바오로)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김화자(소화데레사) 정인해(예로니모)
- 김순환(루시아) 김옥지(아가다)
-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 이중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 김동희(첼레나) 고종호(마태오)
- 홍봉운(바오로) 지군자(스테파니)
- 전마사자(카타리나)

[감사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내신 분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정희연(첼리나)